

이게호 2020년 의정성과

고난 극복, 개혁 원수, 지역 발전 최선

이게호 국회의원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와 수해로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은 농어민과 지역민들을 위해 노력했다.

4·15 총선에서 전국 최초로 당선을 확정지으며 호남 최다선인 3선 고지에 오른데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아 호남 최다선이자 상임위원장으로 광주전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굴절없이 전달했다.

■ 4·15 국회의원 선거, '전국 첫 당선' 확정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 지역민들의 압도적 지지(득표율 82%)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당선을 확정

○...3선 국회의원에 오른 이게호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여망을 받들겠다”며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될 것”을 다짐

■ 사상 최악 물 폭탄, 특별재난지역 촉구관철



○...지난 8월 사상 최악의 물폭탄이 쏟아져 독이 무너지고 집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은 지역구 수해 현장을 찾아 조속한 피해복구를 약속하며 이재민 구호에 온 힘

○...이 의원은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을 비롯한 전남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 · 관찰시켜 지역구 수해복구 예산으로 총 2,503억원의 국비 지원을 확정

■ 코로나 재난지원금 국회 통과, 비대면 지역구 소통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1·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 통과시켜 지급한데 이어 내년도 본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

권력기관 개혁 입법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이낙연 당대표 특보단장으로서 호남중심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 본예산에 국립기관 유치설립 예산을 대거 반영하는 등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고난극복과 개혁원수,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한 이게호 의원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소개한다.

○...이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감소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위한 정책 ·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며 방역 업무에 고군분투중인 지역 공직자 격려에도 만전

○...또한 지역 행사와 모임들이 대부분 취소 · 연기되면서 지역민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어려워졌지만 전화 · 온라인 활용과 지역별 당사를 통한 민원 파악에 나서는 등 비대면 지역구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민들과 변함없는 소통



■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당선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당선,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상임위를 이끌며 농어촌의 산적한 현안해결과 함께 농어민의 입장을 대변한 정책마련과 입법, 예산활동을 주도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간사와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며 농어촌상생기금 도입과 청탁금지법 개정, 앞장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 쌀값 안정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같은 농정개혁의 틀을 마련하는 등 농어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국회 내에서 가장 높다는 평

■ 이낙연 당 대표 특보단장 임명 ‘당 외연 확장 최선’



○...이낙연 당 대표 특보단장에 임명돼 현역의원 16명 등 지역별 · 세대별 · 직능별로 포진한 당대표 특보단 활동을 공식 시작

○...이 의원은 “특보단은 당대표에게 정책적 · 정무적 자문을 충실히 수행, 당이 국정을 뒷받침하고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당의 외연 확장을 통한 정권재창출 기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

■ 지역구 국립기관 설립예산 반영, 미래성장동력 확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담양 한국정원문화원,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 함평 축산자원개발부와 같은 국립기관을 설립 · 이전하고 영광 e모빌리티 기반구축 사업 등 지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이 될 국비예산을 대거 확보하는 성과

○...특히 내년 예산안에 9건의 신규 사업비를 새로 반영하며 정부안 대비 무려 202억을 순수증액시키는 등 지역 현안 ·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가장 성공적이고 내실있는 예산확보라는 평가

○...이 의원은 이번 예산안 통과에 앞서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한 장관과 예결위원장,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 예결위원들을 차례로 만나고 지역 군수들과 면담을 주선하는 등 지역 예산 반영에 총력

■ 특별교부세 92억 확보, ‘지역현안 해결사’ 역할 톡톡



○...전문성과 인맥으로 매년 90억 이상의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으며 ‘독보적 특교세 확보’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이게호 의원이 올해 역시 총 92억원의 특교세를 배정받으며 호남 최다선으로서 단연 돋보인 성과

○...이 의원은 지역내 시급한 소규모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지난 9월 23억원을 배정받는데 이어 올 하반기 마지막 특교세로 30억원을 추가 확보해 도로 · 관광 · 주민편의시설 조성 · 정비 등 ‘지역현안 해결사’로서 톡톡한 역할

■ 5·18특별법 국회 통과, 권력기관 개혁입법 제 역할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5·18 왜곡처벌 · 진상규명법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상정 처리

○...또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법 처리와 국회 정부위원으로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는 국정원법 개정안 조문구성에 참여한 데 이어 관련 법안을 본회의 통과시키면서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완수하는데 제 역할



■ '2020 국감 우수의원'...원만한 진행, 정책대안 제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균형감 있는 원만한 의사진행과 다양한 정책 제언으로 쿠키뉴스가 선정하는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옴티머스 사태 등 여야 갈등 소지가 큰 쟁점을 두고도 단 한번의 파행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참여 촉구 등 과감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

■ 농촌 살릴 ‘고향사랑기부금법’ 발의, 국회 통과 최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자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 ·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발의

○...도시민 · 향우 등이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감면과 함께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고향세법’은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야당 의원 반대로 현재 법사위 계류중

○...이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회생에 유용한 재원이 될 고향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농축수산물 소비확대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농어촌 지역 이중고 심각”
이개호 위원장,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은 지난 6일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건의문을 발표하고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9월10일~10월4일)에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했

다.
해당 조치를 통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2019년 대비 축산물 10.5%, 과일 6.6%, 수산물 4.7%가 증가해 농어가 경제에 기여한 바 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건의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에서는 현장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농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지속돼 예년에 비해 우리 농축수산물의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농어민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설 선물가액 상향을 주장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향적인 상향검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담양·함평·장성 3개 국립기관 설립예산 확보 ‘성과’

이개호, “지역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이개호 의원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개 국립기관 지역구 설립을 확정하는 예산을 반영해 보기도문 성과라는 평가다.
담양군은 한국정원문화원 조성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해 정원산업을 육성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고,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으로

43억원을 반영시켜 지역특화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함평군은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43억원을 확보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갖추게 됐다. 3개 지역구에는 9건의 신규 사업비가 반영됐다. 정부안 대비 202억원이 증준돼 총사업비 규모는 1조81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지역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립기관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3개 기관 유치에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은 “영광군은 e-모빌리티 공정고도화 기반구축사업 예산(10억원)을 확보해 e-모빌리티 중심지로서 나아가갈 여건을 마련했다”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경북 영덕 방문 민주당 기초의원 대상 강연

■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 특강
UR개방으로도 농업 망하지 않은 이유 3가지
‘축산’, ‘새로운 소득작목’, ‘농촌을 지킨 사람’

이개호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경북 영덕 국립 청소년해양센터에서 민주당 경북지역 기초의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특강에서 공직경험을 통해 직접 겪은 대한민국 농업의 과거

와 현재를 진단하고 농림부장관이자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바라본 농업·농촌의 새로운 내일을 전망했다.
그는 “90년대 UR 협상 타결로 농산물이 개방되면서 농업강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농촌은 살

아남기가 어려울거라 생각했지만 농업은 여전히 든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그 배경으로 축산과 새로운 소득작목, 농촌을 지킨 사람 3가지를 지목했다.
특히 방울토마토와 멜론, 블루베리에 이어 최근 샤인머스킷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등장하는 등 농민들의 노력으로 우리 농업이 버텨온 것이라며 한농연과 같이 농업·농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대로 농업·농촌이 마냥 유지될 수 없다”며 “그래서 영농정착자금 지원과 청년농육성, 공익형직불제와 같은 정책적인 지원과 쌀값 유지 등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 농업은 스마트팜과 유전자 가감 농축업이 이끌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와 ‘혼밥’이라는 소비구조 변화가 유통시장 대혁명을 불러왔다”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대응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함께 우리 농업을 이끌고 있는 농도 경북에서도 기초의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새해 코로나 극복과 희망찬 도약을...” 결의

이개호 의원, 새해 맞아 5·18 민주묘역 참배

이개호 의원은 2021년 새해를 맞아 지난 4일 핵심 당직자들과 함께 광주 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코로나19 극복과 희망찬 도약을 다짐했다. <사진>
이 의원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5·18 항쟁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묘역 앞에서 헌화·분향한 뒤 영광출신 박관현 열사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코로나19를 감안해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 강필구 수석부위원장, 김정오 담양군 의장, 임현식 사무국장 등 소수 인원만 참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18 특별법 국회 통과로 진실규명과 왜곡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5월 민주영령의 뜻을 받들어 개혁과제를 완수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개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

이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자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접수된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 목적으로 사용하게 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세액감면 혜택은 물론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답례품으로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

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이개호 의원이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행안위원회에 계류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대표발의의 한 바 있다. 행안위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간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심각하고,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자체간 세수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되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독립성 확보, 권한집중 방지’ 해경법 국회 통과 이개호 의원 “민주적 운영, 실력있는 조직 되길”

이개호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조치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해양경찰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해양경찰도 이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 만큼 해경은 앞으로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실력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한 이른바 ‘정인이법’ 등 1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개호 의원, 올해 특별교부세 92억 확보

20대 국회 이후 5년 동안 매년 90억 이상 확보 성과

이개호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지역구인 4개 군, 8개 사업에 총액 30억원을 추가해 올 한해 특별교부세로 92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지역별로 보면 담양군은 ▲고가제 문화관광공원 조성사업 4억원 ▲담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3억원, 함평군은 ▲수산봉전만타워 조성사업 4억원 ▲함평 천지길 조성사업 4억원 등이

다.

영광군은 ▲농어촌도로 201호선(매간당 고택진입로) 확포장 4억원 ▲영광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5억원, 장성군은 ▲황룡 맥동마을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2억원 ▲약수천 보행데크 정비사업 4억원을 각각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지난 9월에도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로 4개 군, 4개 사업, 23억원을 확보

하는 등 지난 20대 국회 이후 5년 동안 매년 90억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 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의원은 “각 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빠짐없이 챙기고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수부 ‘어촌뉴딜300’ 사업에 영광군 항월항과 함평군 월천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영광 항월항에 67억원, 함평 월천항에는 80억원이 투입돼 낙후된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개호 의원,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주민간담회

수십년 째 재산권 피해 합리적 구역 조정 요구 이 의원, “보존가치 부족 마을·도로주변 해제 요청할 것”

○...이개호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장성 내장산국립공원구역 해제를 바라는 북하·북이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조속한 면담을 갖고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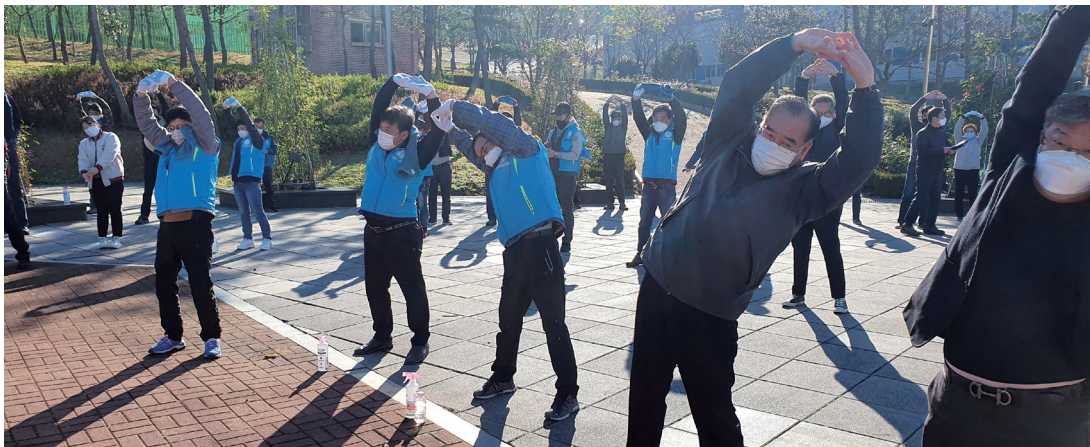
○...국립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새로운 편입·해제지역을 조정하는데 타당성 조사에 이어 지자체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확정할 계획.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와 달리 타당성 조사결과 극히 일부만 국립공원 해제구역에 포함

되면서 반발이 큰 상황.

○...주민들은 "수십년 째 국립공원 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백양사 인근과 남창마을은 등산로 정비조차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

○...이개호 의원은 "확실한 국립공원 구역 설정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온 주민 의견에 공감한다"며 "국립공원으로서 보존가치가 부족한 마을 주변과 도로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답변.



[새해 포부] 최형식 담양군수

“보편적 복지 강화·
주민 참여 생태도시 적극 추진”

최형식 담양군수는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추진에 발맞춰 농촌에 적합한 ‘담양식 그린뉴딜 중기계획’을 추진한다.

담양군은 올해 목표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강화에 두고 △위기극복을 위한 보편적 복지 강화 △군민 권리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 실천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도시 △담양식 그린뉴딜 등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 군수는 “민선 7기 군정 성과가 군민들 피부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겠다”며 ‘행복도시 담양’을 위한 7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를 통해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복지플랫폼과 SNS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돌봄, 어린이집 확충, 아동센터 1대 1 전담주치의 지정, 건강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소를 지역보건방역과와 주민건강정책과로 분리해 지역공공 의료 역량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담양장터물을 법인화해 회원제 운영과 온라인 판매교육, 흡소핑, 라이브 쇼핑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비대면 유통망을 발굴해 ‘작지만 강한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산품인 딸기와 블루베리의 6차 산업화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담빛농업관을 담양농정의 구심점으로 만들고, 통합 RPC 건립, 친환경 학교·공공 급식센터 운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역자원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담주 다미담예술구 활성화, 담양 시장 재건축,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도란도



사회안전망 강화,
농업의 6차산업화 등
경제활성화에 역점

란 키움 담소 조성 등과 함께 에코하이테크 담양산단에 복합문화센터와 LH 행복주택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담양식 그린뉴딜 중기계획’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일상에 대응하기 위한 3대 전략, 12대 융합사업안을 내놴다. 향후 2030년까지 6000여 개 일자리 창출, 41만 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밖에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사람을 생각하는 생태정원도시 건설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 △주민중심의 적극행정을 신축년 한 해 실천과제로 내세웠다.

최 군수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담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새해 포부] 이상익 함평군수

“군민 단합하는 신축년,
‘함평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 것”

“올해 군정의 최우선 목표를 ‘혁신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에 두고 새로운 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경제 선순환을 통해 군민들의 먹고 살 걱정을 덜겠습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6일 신년사를 통해 함평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 산업의 성장과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신축년을 ‘함평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2023년 준공을 앞둔 빛그린산단 2단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광주글로벌모터스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힘쓸 계획이다. 이어 ‘산단 배후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해 월야 인근 정주환경 수준을 끌어올리고 인구 유입과 군민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한다.

500여억원이 투입된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축산업의 판도를 함평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3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1천35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등이 발생할 전망이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도 올해 1차 예산을 확보한 만큼 함평을 중심으로 국내 축산업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함평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공공부문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등 1천개 이상의 공공형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체류형 관광’, ‘함평읍 도시뉴딜’,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유통’ 등 3가지 비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함평천지공원을 조성해 지역 대표자원인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천, 화양근린공원을 한데 모아 축제 기간만 반짝하는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 노린다

“동심만리로
군민 합심해 나아가길”

‘시즌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변모시킨다.

이를 위해 짚라인, 수산봉 전망타워, 스카이워크 등 각종 인프라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자원 활용을 위해 용천사원 개발사업, 대동댐 탐방로, 돌머리와 안악을 잇는 해양경관 조성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9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각종 체험시설과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을 모두 갖춰 종합관광타운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함평읍 도시뉴딜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 수요맞춤사업 등을 추진해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담양군, 지자체 최초

‘담양군 농업실태조사’ 통계 개발 발표

표본농업인 1,008명 대상으로 4개 분야 29개 항목 조사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분야 중장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최초로 ‘농업실태조사’를 개발·공표했다.

군은 지난 4월 호남지방통계청과 농업 분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담양군 농업실태조사’ 통계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4개 부문 29개 항목을 조사, 12월 24일 발표했다.

호남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담양군 농민 평균 농업 종사기간은 31.2년으로 집계됐다. 농업정책에 대해 25.6%가 만족하고 15.8%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 융자 및 보조금 지원 확대(5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통계는 담양군 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기본사항, 소득 및 지출, 농업 일반, 농업 정책 등 총 4개 부문 2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표 구성에 있어 농업 관련 부서는 물론, 대학교수 및 지역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최형식 군수는 “농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농업 정책을 수립하겠다. 농민의 삶이 바뀌는 담양을 실현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실태조사 자료는 담양군,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군, 2020년 감염병 관리사업 국무총리 기관표창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2020년도 감염병 관리사업 종합평가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정부포상인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전국 지자체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사업 정부포상을 진행해 감염병 관리실적이 우수한 2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고, 여기에 담양군이 포함됐다.

군은 감염병대응 담당부서 신설과 보건소를 2개과 체제로 조직개편해 감염병 전담부서 기능 강화, 코로나19의 지역 내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조치를 철저히 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전 취약계층과 50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함평군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집중 육성한다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12억 원 투입 유전자 검사초음파진단기 확보 등 예산 적극지원

함평군은 우량 송아지 브랜드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함평천지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함평천지한우 육성사업은 한우 개량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전남도가 도내 각 시·군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일반 한우와의 품질 차별화를 위해 각 지역에서 천자확인고 선발기준 등을 심사해 품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대상으로 ‘으뜸한우’ 브랜드 명칭을 부여하고 집중 육성·관리한다.

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4억 원씩 총 12억 원을 투입한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개체별로 관리하는 등 브랜드화 사업을 실시하고 가축시장 내 전자경매 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한우농가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사업시행기관인 함평축협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전담인력을 구축할 방침이다.

종축개량, 전산D/B구축, 유전자 검사, 정액 공급, 초음파진단기 확보 등 송아지 브랜드화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함평군, 2020년 귀농산어촌 종합평가 ‘대상’ 수상

최우수상 장성·담양군, 우수상 영광·고흥·해남군

전남도가 2020년 귀농산어촌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의 영예는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차지했다. 또 최우수상은 장성·담양군이, 우수상은 고흥·해남·영광군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금으로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각

2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을 차지한 함평군은 귀농산어촌인 유치와 자체교육, 지역민 융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과 자체사업 예산 확보 부문에서 남다른 성과를 거뒀다.

최우수로 선정된 장성·담양군은 귀농산어촌인 유치, 각종 교육 및 설명회 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새해 포부] 김준성 영광군수

“‘이모빌리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습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2021년은 민선7기 후반기를 사실상 마무리 하는 해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군민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완성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는 2020년 군정 성과로 합계 출산율(2.54명) 전국 1위,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전남도 인구정책평가·농정종합평가 1위 등을 꼽았다.

새해에는 강한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 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영광의 미래 먹거리인 '이모빌리티' 지역 전략산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미래차전자기와 적합성 인증센터, 이모빌리티 전원시스템 평가센터, 소형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이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

또 안마도 일원에 추진하는 528MW 규모의 '국가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사업', 백수읍 하사리 일원의 '초대형 풍력실증기반 구축사업', '군민 햇빛발전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분양률 85.7%를 보이고 있는 이모빌리티산업의 심장인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도 분양을 완료해 지역경제와 개인의 삶을 지탱해 줄 일자리 확대에 주력한다.

'미래를 여는 건강한 농어촌 육성'을 위해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시범운영, 농어민 공익수당, 농업인 월급제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꾸준히 조성한다.

푸드플랜 구축,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채널 다양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다양한 소비 트렌드 변



안마도 일원 국가해상풍력단지
차질없이 추진

자연재해 조기 대응 시스템,
'비대면' 스마트 지도 구축도 추진

화에 대응한다.

일상에서 누리는 관광·문화·스포츠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축제 개최, 영광스마트 관광지도 구축 등 비대면 관광콘텐츠를 강화한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 군수는 “코로나19 방역과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는 새해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감염병 대응팀을 신설해 신종 감염병 발생요인과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건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능동적인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CCTV 확대 설치,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스마트배수펌프장 설치 등 스마트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안전하고 항구적인 식수 확보를 위해 식수전용 저수지를 신설하고,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새해 포부] 유두석 장성군수

“엘로우시티 장성, 새로운 10년 위해 도약할 것”

“훗 소처럼 성실하고 듬직하게 장성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엘로우시티 장성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다. 그동안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면 앞으로는 후대를 위해 든든한 나무로 키워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군수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장성사랑상품권 ▲청운지하차도 개설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 등을 꼽았다.

지난해 275억원 규모로 발행한 장성사랑상품권은 89%에 달하는 245억원이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환전됐다.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장성호 수변길에 도입한 '상품권 교환제'가 특히 장성사랑상품권 보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군수는 “장성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올해는 전자형 화폐로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고속도로 진·출입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장성을 방면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IC)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장성을 중심부와 서북권을 연결할 청운지하차도 개설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장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모델 기본구상,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을 관계 기관과 더 긴밀하게 추진한다.

공설운동장 부지에 신축하는 '엘로우시티 스타디움'은 5월께 준공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색채마케팅을 도입한 장성군이 표방하는 엘로우시티도 한층 상향한다. 황금빛 출렁다리와 숲속길 조성으로 새로운 매력을 더한 장성호는 체류형 관광지로 재탄생시키는 데 역점을 둔다. 치유의 숲을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 마련
장성호 체류형 관광지로 재탄생
서북권 연결 청운지하차도 개설

품은 축령산을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모두의 휴식처로 만든다는 목표도 세웠다.

농업과 농촌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는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종자산업 기반 구축,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장성만의 색깔이 담긴 도시 디자인으로 색채 도시를 선도하겠다”며 “지역 경관을 개선하고 마을 단위 역량을 강화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여러 곳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의 명소인 황룡강과 장성호, 축령산을 활용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어 “2023년 지방 정원 등록을 목표로 황룡강변 오색정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더해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황룡강으로 디자인해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군 ‘2020년 군정을 빛낸 우수시책 TOP10’ 선정

2020년 최고의 군정시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

영광군은 지난 23일 ‘2020년 군정을 빛낸 우수시책 TOP10’을 선정, 발표했다.

영광군은 “부서별로 추천한 시책 및 사업 30건을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투표로 진행한 결과 다득표 순으로 상위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영광군을 빛낸 최고의 시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군 합계 출산율 전국 1위가 차지했다.

군은 지난 2019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인구위장지정체질을 신설한 후 결혼·출산·보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했다. 정책 추진효과는 적중했다. 영광군의 지난해 합계출산율(1.82명)이 전국 2위에 이어 올해 합계출산율(2.54명) 1위를 차지하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자체로 우뚝 섰다.

군은 우수시책 TOP10에 △행복주택 건립 △천 원 여객선 운영 △농기계임대사업 4년 연속 전국 1위 △전남 최초 규제혁신기관 인증 획득 △농협중앙회~학정교차로간 인도정비 및 전선 지중화사업 △코로나19 온라인 수업용 스마트 기기 지원 △희망가득 영광곳간 운영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농어촌버스 탑승관리원 운영 등을 선정했다.

영광군, 전남도 투자유치 최우수상 ...투자 이행을 탁월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올 한해 활발한 투자유치 성과를 이룩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영광군은 지난 22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20년 일자리·투자유치 한마당 행사'에서 투자유치 평가 분야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상금 1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올해 영광군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카 생산 기업 5개사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투자유치 1115억원, 신규일자리 753개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유두석 장성군수, “공직자 본분·초심 잃지 않기를”



유두석 장성군수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본분과 초심을 강조한 조선시대 임금의 교지(敎旨)를 본뜬 임명장을 수여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

유 군수는 지난 4일 새해 1일자로 승진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3명 등 총 4명의 승진 간부들에게 교지 형태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교지는 조선시대에 임금이 문무관 4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던 사령장이다.

장성군이 수여한 임명장은 종이를 천에 붙인 두루마리 형태에 내용은 붓글씨로 작성했다.

유 군수는 “군 행정의 중추적 조직 관리로서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지 임

명장을 마련했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앞으로 사무관 이상 승진자에게 교지 형태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장성군,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대창지구 선정

장성군(군수 유두석)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장성읍 대창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해당 공모사업은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간 장성군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대학 개강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 소재 발굴에 집중한 끝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는 결실을 얻었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새해부터 사업비 2억 8천만 원(국비 1억 4천만 원 포함)을 투입해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 공유환경 정비,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군의회, 제299회 2차 정례회 폐회

새해 예산 4327억 중 불요불급 예산 3억5천 삭감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사진)는 지난달 25일부터 21일까지 27일간 일정으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형식 군수의 시정연설을 듣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올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동 의원, 김미라 의원, 이정옥 의원 3명의 의원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출연안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에 이어 대기와 토양, 수질오염의 원인인 아이스 팩 수거 및 재활용으로 환



경보존에 동참하는 이정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위원회별로 안전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내년도 본 예산안 4327억여 원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4건의 예산 3억5000만 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고, 김정오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 외 11건을 원안가결 한 후 올해 담양군의회 공식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정오 의장은 “어느 해 보다 힘들었던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 되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함평군의회 21일부터 새해 첫 임시회 개최



함평군의회(의장 김형모)는 21일 제26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13일간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함평군의회에 따르면 신축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회기동안 집행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021년도 수시분(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에 따

른 추가 감염자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 내 가림막 설치, 본회의장 참석 인원 제한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김형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새해를 맞이해 한해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군, 상습 침수피해 신광면 일대 정비사업 착수

국비 112억 확보 2024년까지 하천 및 교량 정비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신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최종 확정돼 국비 112억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광면 소재 일대는 지난 2009년부터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이번 사업비 확보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함평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 112억 원 등 총사업비 223억 원을 투입

해 오는 2024년까지 하천정비 2.8km, 교량 4개소, 가동보 3개 등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실시설계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2년 착공해 하천정비, 취약방재시설 보수보강을 통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태풍, 홍수 등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상습 풍수해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설물을 정비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구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등 17억 원을 추가 확보해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게 됐다.

이상익 군수는 “이번 사업 확정으로 침수피해 걱정이 해소돼 주민 삶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앞으로도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모 함평군의회 의장, 자치분권 챌린지 동참



김형모 함평군의회 의장은 20일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진을 SNS에 게재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고 있다.

최은영 영광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은 김형모 의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자치행정시대를 기대하겠습니다.’의 피켓을 들고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어 김한중 도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정안전부 주관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도 동참했다.

담양군, ‘국립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전남도·한국수목원관리원과 성공 건립 위해 힘 모아

담양군은 산림청, 전라남도, 한국수목원관리원과 18일 ‘국립 한국정원문화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형식 담양군수와 박종호 산림청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한국수목원관리원 김용하 이사장, 이개호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해 국립 한국정원문화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실질적 업무

협력과 지원체계 구축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에는 ▲건립·운영 사업비 확보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 ▲인력지원 ▲건립 부지 매각·매입 절차 신속이행 ▲부대시설 조성계획 수립 및 사용허가 등을 담고 있다.

국립 한국정원문화원은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만㎡ 부지면적에 정원연구동, 교육실, 온실, 시험포

지, 실습장, 전시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한국정원문화원이 완공되면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정원 자원을 발굴, 연구하고, 정원 유형별 표준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한국정원의 산업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정원산업의 전초기지 역할과 정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현웅 함평군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정현웅(사진) 함평군의회원이 최근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의정봉사상’을 수상했

다.

의정봉사상은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가 22개 시·군 의회 의원 중 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모범적인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정 의원은 제3·4대 후반기 부의장과 제8대 전반기 경제건설위원장을 지냈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 왔다.

또한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제정하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

엘로우시티 장성군, 출산가정 지원 확대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지원, 신생아 양육비 50만원

엘로우시티 장성군이 올해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출산가정 지원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올해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6개월 이상 장성군에 주소 둔 셋째아 출산 가정부터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30만원이던 신생아 양육비는 20만원을 더해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 250만원, 셋째아 42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등 차등방식으로 지급한다.

난임부부를 위한 '전남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회당 20~150만원의 난임시술비를 연간 2회 지원한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기존 기준중위소득이 높아 정부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부부도 올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은 1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부부에 대해선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4개월분의 한약을 지원한다.

장성군이 추진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90-8363~4)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더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었던 다자녀가정 자격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3000만 원 이상이었던 대출금액 기준 한도를 없애고 3000만 원 미만까지 월정액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신청 시 대출잔액에 따라 월정액 3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단, 이자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액 실비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중 의장, 5.18 민주묘지 참배

희망찬 도약 다짐



전라남도의회 김한중 의장(장성2)은 1일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새해 희망찬 도약을 다짐하는 '2021 신축년 신년 참배'를 했다.

이날 참배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최소 인원으로 김 의장을 비롯해 구북구 부의장과 전경선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 국화 헌화에 이어 분향·묵념을 했다.

김한중 의장은 “신축년 첫 업무 시작을 민주화의 성지이자 상징인 5.18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게 되었다”며 “새해를 맞아 도민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길 바라며 우리 전남 곳곳에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도의회는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5월 민주화 정신을 계승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세일 의원, “고부가가치

수산물 대량생산 시스템 갖춰야”



전남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고부가가치 양식 수산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영광1)은 지난 5일 해양수산과 학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조기 등 고부가가치 양식 사업에 관해 심도 깊은 질의를 했다.

장 의원은 “2015년 영광 굴비 판매액이 3,5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영광이 참조기 양식 생산의 최적지다. 명실상부한 굴비의 고장인 영광에 참조기 양식 첨단 어업기술을 전달하고 성공적인 연구개발에 힘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장세일 의원은 “전남도 수산물 생산 4조원 시대를 열려면 고부가가치의 양식 수산물의 대량 생산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수산과학원에서 참조기, 꼬막, 김 등 전남 10대 핵심 전략품종을 산업화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박종원 도의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세부 계획 수립 필요



박종원 도의원(담양1)은 지난 11월 4일 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보육사업 교육생 52명 중 성적 우수자 이외의 교육생에 대한 해결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앞으로 미래농업의 일환으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농업의 미래를 위해 청년교육생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잘 운영해야 하고, 청년 일자리 공급과 지역민을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농가 소득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도장터 수수료(6%)를 낮추어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전남도 닭 도축검사 수수료가 타 시도와 비교해 높은 편으로 축산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김경호 국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들에게 배후단지를 조성해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형 스마트팜에 참여토록 하고 경영실습 농장에도 참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장석 도의원 “전남도, 지방세 세입

최대 3150억 원 묵혀놔”

예산관리 꼼수 지적... "도민 행정서비스 제때 못받고 있다"



전남도의 꼼꼼하지 못한 예산관리로 3000억 원이 넘게 공간에서 묵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장석 도의원(영광2)은 최근 전남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관리 시스템과 관련,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쓸 수 있는 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를 그 만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이유는 본예산 편성 때 지방세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적게 했기 때문이다”며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부과 및 수입의 예산반영 오차가 가장 적었던 2018년도의 경우 본예산 1조23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지만 최종 징수액은 1조1651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에는 본예산 편성 시 지방세 세입 규모는 1조900억 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1조4050억 원으로 나타나 오차가 무려 3150억 원이나 발생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묵혀두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에 세수추계 오차 정기 분석을 통해 다음년도에 계상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의회 9대 전반기 농림해양수산위원장, 10대 후반기 부의장, 11대에서는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기성 도의원, “70m 이상

고가사다리차 반드시 필요”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김기성(담양2) 의원은 지난해 열린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내 고층건축물 화재발생 시 필수 장비인 70m이상 고가사다리차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울산시 남구 33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의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른 속도로 고층으로 번졌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전남 지역에 있는 고층건물 화재발생에 대비해 70m 이상 고가사다리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도내 30층 이상 건축물은 목포, 순천, 나주, 광양 등 7개소 21개 동으로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남도내에도 계속해서 고층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한다”고 도소방본부의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현재, 도내 소방사다리차는 최고 높이 53m 소방사다리차 11대를 포함해 총 27대가 분산 배치돼 있으며, 소방청은 울산 화재를 계기로 70m이상 소방사다리차가 없는 시도에 차량을 배치하기 위해 국회에 건의해 예산 확보 중에 있다.

유성수 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정서적 측면 고려해야”



유성수 도의원(장성1)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시 지속적으로 문제돼 왔던 두 학교간의 공동 이용 시설물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성수 의원은 “현재 두 개의 학교가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폭력, 생활지도, 교직원간의 갈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 상당수가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정서적 측면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교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정부가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디지털·그린 융복합 분야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를 설치(그린)하는 것은 물론 교실에 WiFi와 교육용 태블릿 PC를 보급(디지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2021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에 256억 원을 반영했다.